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9월 16일(화) 16시: 연구원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 독서 모임 <모락모락> 4차 시 모임 개최 (9월 8일)

<모락모락> 4차 시 모임이 전북작가회의에서 8월 25일(월) 열렸습니다. 시 모임 길잡이인 김춘기 작가를 중심으로 다섯분의 회원이 함께했습니다. 김춘기 시인의 시집 <상수리나무 책방>, <나의 대표시를 말한다>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 20(월) 18시 30분에는 <나의 대표시를 말한다>, <시를 어루만지다>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제3회 연구원 사진공모전 안내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제3회 한고연 역사문화 사진 공모전

○ 공모부문 : 사진

○ 공모주제 : 역사 및 문화 컨텐츠

-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적 가치 및 풍경 등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모든 사진 작품

○ 공모대상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 공모일정

○ 공모기간

- 8월 18일(월) ~ 9월 21일(일)

○ 심사

- 규격심사 및 온라인 심사 : 9월 22일(월) ~ 9월 29일(월)

- 최종 심사 : 10월 14일(화) / 연구원 2025년 4차 운영위원회의

○ 당선작 발표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소식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문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

※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인천에 뛰어든 제주 출신의 해병대 - 1950. 9. 15



1950년 9월 15일 인천 해안에 상륙하는 해병대

인천 자유공원에는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이 서 있다.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미국 군인은 1950년 9월 15일 그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의 하나를 개시한다. 바로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인민군의 방어가 강력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치열했다. 하지만 이 고집 센 별 다섯 개짜리 장군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천을 고집했다.

이 작전은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명이 동원된 대규모 상륙작전이었다. 한국군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15척의 한국 해군 함정과 함께 해병대가 주력이었다. 특히 해병 3기와 4기가 한국 해병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전원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4월 3일 일어난 항쟁의 여파가 어떤 식으로 제주도를 휩쓸었는지에 따로 할 얘기가 없을 것이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죽어나간 세월이 여전히 독살스러웠던 무렵 1949년 12월 한국 해병대가 제주도로 온다. 공비 토벌과 병행해서 해병대 양성소로서 제주도를 점찍은 까닭이었다. 그런데 6개월 뒤 전쟁이 터진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제주도민들에게 해병 입대를 권유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4·3이었다. 혈서를 쓰며 입대한 사람을 비롯하여 열혈지원자 가운데에는 4·3의 봉기 세력과 연관된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나이가 어린 중학생들은 꼭 군대에 가겠노라고 고집을 부렸고 형제들이 몽땅 입대해 버리자 어머니가 목을 놓아 우는 광경도 흔한 일이었다 한다. 그 때 입대한 해병 3기 1,661명과 4기 1,277명이 제주 출신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에는 한국어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제주도 표준어로 서로 안부를 나누며 M1 소총을 굳게 쥐고 있던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고향의 식솔들에게 국방군 가족이라는 우산을 씌워주고자 했던 제주도 출신의 해병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용기에 감복하는만큼 그 용기의 근본은 자신을 사자로 내몰고 가족을 살리기 위한 슬픔에 바탕한 사연임을 알게 된 다음 숙연하지 않을 수 없다.